

에이즈 검사능력 강화를 위한 「2023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최(4.12.)

- 질병청, 전국 900여 민·관 에이즈 진단검사실의 숙련도평가로 검사능력 관리
- HIV 진단검사 워크숍(관계자 220여명 참석)을 통해 에이즈 담당자의 검사능력 강화 기대
- 신속·정확한 검사를 위한 에이즈 진단검사 현황 홍보 및 교육 지속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12일(수),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병무청, 혈액원 등 공공 보건기관의 에이즈 진단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붙임1 참고)

*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현황* 및 실적을 공유하고 진단검사 정도관리 주요 사항, HIV 최신 진단검사법 등을 소개하여 에이즈 담당자의 검사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22년 보건소 HIV 검사건수: 총 141,992으로 전년(104,621) 대비 35.7% 증가

질병청은 전국 900여 민·관 에이즈 진단검사실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해 숙련도평가*를 운영하여 진단검사 표준화를 유도하고 있고, 확인검사 기관에 내부정도관리물질**을 제공하여 실험실 정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 숙련도 평가: 평가 대상기관 검사자의 검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 내부정도관리물질: 농도를 알고 있는 물질로 검사과정의 정확도·정밀도 검정 시 이용

또한 2022년부터는 HIV 확인진단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원중화 검사*를 도입하여 에이즈 조기진단체계**를 강화하였다.

* 항원중화검사 : 항원 검사에서 양성반응인 검체에서 HIV 항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화반응검사 수행

** 감염 후 HIV 검출시기 단축(30일~100일 → 15일)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HIV 진단검사 체계와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소에이즈검사 이용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900여 진단실험실에 대한 HIV 숙련도평가 민·관 통합 운영 결과*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실험실 정도관리 및 항원중화 검사 도입 후 효과**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 HIV 숙련도평가 참가기관 : 공공 300여기관(18개보건환경연구원, 255개보건소, 10개 병무청검사실, 4개 대한적십자사 검사실) 민간 600여 병·의원

** 전년 대비 미결정 검체감소 및 양성비율 증가: 신속한 결과 통보 후 초기 감염자 조치치료로 2차 확산 방지

아울러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HIV 감염자 치료 및 관리와 HIV 최신 검사법에 대한 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에이즈 진단검사 담당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에이즈 진단검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 개요
2. HIV 질병 바로알기 (Q & A)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진단분석국 바이러스분석과	책임자	과 장	한명국 (043-719-8190)
		담당자	연구관	김희만 (043-719-8192)
			연구사	왕진숙 (043-719-8195)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	책임자	과 장	민선녀 (043-719-7330)
		담당자	연구관	김화수 (043-719-7915)

□ 워크숍 개요

- 일시 : 2023. 4. 12.(수) 13:00~16:30
- 장소 :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1전시장
- 참석자 (약 220명)
 - 질병관리청 바이러스분석과 및 에이즈관리과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HIV 담당자 및 부서장
 - 지자체 관리부서, 보건소
 - 병무청검사실,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 부서장 및 실무자

□ 워크숍 일정

시 간	프 로 그 램	발 표 자
13:00~13:30	등 록	-
13:30~13:40	개 회 사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질병관리청)
13:40~14:00	HIV 진단검사 운영현황 및 계획	한명국 과장 (질병관리청)
14:00~14:20	AIDS 관리 정책	민선녀 과장 (질병관리청)
14:20~14:50	HIV/AIDS 치료 및 관리	김연숙 교수 (충남대학교병원)
14:50~15:10	휴식 시간	-
15:10~15:40	HIV 최신 진단검사법	박윤희 교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15:40~16:10	HIV 정도관리 및 검사현황	왕진숙 연구사 (질병관리청)
16:10~16:25	종 합 토 의	김희만 연구관 (질병관리청)
16:25~16:30	폐 회 사	한명국 과장 (질병관리청)

□ 문의

- 담당자: 바이러스분석과 왕진숙 (043-719-8195)

1. HIV란 무엇이며 어떻게 전파되나요?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로 주로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HIV의 특성>

- ① 피막바이러스로 인체 밖으로 나오면 바로 비활성화 되거나 사멸함.
- ② 체액에 존재하더라도 마르면 사멸함.
- ③ 염소계소독제에 취약하여 수돗물의 염소농도에서 비활성화 되고, 희석되면 감염력을 상실함.

2. HIV와 에이즈(AIDS)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질병의 진행경과에 따라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로 나누어 부릅니다.

- **'HIV 감염인'**이란 넓은 뜻으로 보면 에이즈 환자를 포함하여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질병의 진행경과를 적용하면 HIV에 감염되었지만 면역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에이즈 정의질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에이즈(AIDS)는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로, **HIV 감염 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을 말합니다. 에이즈(AIDS) 환자는 HIV에 감염된 사람 중 면역체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손상된 사람과, 면역체계 손상으로 인해 비감염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증, 암 등 면역결핍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냅니다.

3. HIV 양성 판정 후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전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증상의 유무가 아니라 **혈중 바이러스 유무**입니다. HIV 감염은 장기간의 무증상기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HIV 감염인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더라도 체내에서는 잠복한

바이러스가 면역세포를 서서히 파괴하면서 증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는 것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HIV에 감염된 직후부터 타인에게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HIV 감염인이 치료제를 잘 복용하여 혈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도 극히 낮아지게 됩니다.

4.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나요?

완치제는 없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HIV 감염인들이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제는 항레트로 바이러스제로서 완치제는 아니지만 HIV의 증식을 억제하여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입니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한번 복용을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복용법을 정확히 지킨다면 감염인의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시켜 줍니다.

5. HIV 감염 의심시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HIV 검사는 보건소,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국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무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HIV 감염 의심 시 해당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자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